

“티베트에 자유와 평화를...”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 8월 8~9일 롤링홀서 개최



제3회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노브레인(좌)’과 ‘하피엔TJ’.



제3회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노브레인(좌)’과 ‘하피엔TJ’.

“티베트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지만 그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독립돼야 합니다. 부처님이 인간 세에 나실 적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는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개개인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불교이며 종교의 자유를 찾아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망명하는 티베트스님들과 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력입니다.”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티베트 난민촌을 후원하는 자선공연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Save Tibet Festival)’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

다. 8월 8·9일 양일간 펼쳐질 행사의 총 감독을 맡은 잡양(티베트·Tenging Jamyang·32)은 2004년 한국의 땅끝마을에서 임진각까지 600km 국토종단을 하며 한국과 티베트의 공감대를 발견하고 지금의 축제를 기획했다.

“현재 한국은 독립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에 한국인과 티베트인은 남다른 열정과 따스함이 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며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처럼 한국 또한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기서 소리치면 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은 NGO ‘록빠(Rogpa)’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록빠는 ‘듣는 이’, 친구라는 의미를 지닌 티베트어로 한국에서는 티베트 난민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양국의 건강한 교류를 지향한다.

이번 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롤링홀’에서 열린다. 강산애와 체리필더를 비롯한 인디밴드들이 출연해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노래할 예정이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이들이 펼치는 오아시스로 초대한다. 티켓예매=(010)3061-9495

기연숙 기자



2000만 불자는 항우석박사의 연구승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 본사 주지일동

“항우석 박사 연구 승인을 촉구합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7월 24일 항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황우석지킴이불자모임(대표 이주용) 등은 7월 29일 조계사(주지 세민)에서 ‘항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법타 스님은 성명서를 낭독한 후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조계종 사찰 1000여 곳에 현수막을 전달하고 게재를 당부했다.

“미얀마에 자비 손길 보내주세요”

아신 나네이사라 스님 조계사서 법문



만 미얀마 군정의 통제와 감시로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것이다.

“사이클론 피해 입은 미얀마에 한국불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 부친 석왕사 초청으로 미얀마에서 온 아신 나네이사라(71) 스님이 7월 29일 조계사서 법문을 했다. 이번 법회는 중앙신도회 ‘미얀마의류지원캠페인’ 진행에 감사를 표하고, 최고기 등 시국문제로 잊혀져 가는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복구에 불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신 나네이사라 스님은 양곤 승가대학 졸업 후 예라와디 비비엠타 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시파구 국제불교대학을 설립했으며, 무료진료소·쌀 기부운동·수돗물 지원 프로젝트 등 미얀마 복지향상에 앞장선 미얀마 고승이다.

아신 스님은 “자비는 고통 받는 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행복의 원천이지만, 자비심만으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없다”며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자비와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신 스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비심을 갖고 보시하는 것은 세계인이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 설명했다.

자비와 지혜의 조화를 강조한 법문을 마친 아신 스님은 “미얀마에 한국불자들이 지원해 의류와 식량뿐만 아니라 학교 등 교육과 주거공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한국불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얀마는 5월 2일 사이클론으로 2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000개 넘는 사찰과 5000개 넘는 학교, 400만 에이커(160억㎡)의 농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국제사회의 도움이 잇따르고 있지

조계종에서는 미얀마 사이클론이 발생한 직후 전국사찰에 공문을 보내 성금운동을 전개했다. 해인사, 수덕사 등 전국교구본사와 한미음선원, 불교TV 등의 성금으로 현재 4억6000만원이 모금됐고 향후 전달방식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미얀마불교대책위도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자들을 위한 의류 모이기 운동을 벌여 7월 16일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의류를 보냈다. 8월 말에는 추가로 2차분을 전달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광장의 촛불은 선재동자다”

시국법회추진위 시국토론회

촛불의 미래를 얘기하는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대표 추진위원장 수경)가 7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대중공사 ‘촛불의 진화를 위한 성찰’을 개최했다. 이번 시국토론회는 시국법회 추진위가 7·4 시국법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시국기도회·시국문화제의 일환이다.

다른 각도와 표현으로 진리를 외치는 집단지성, 즉 불교의 화엄사상이다”며 “어려운 촛불화엄사상은 생명이라는 보편진리로 평화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장의 촛불하나 하나는 <화엄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대중공사 ‘촛불의 진화를 위한 성찰’을 개최했다. 이번 시국토론회는 시국법회 추진위가 7·4 시국법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시국기도회·시국문화제의 일환이다.

우희종 교수도 “폭력은 폭력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며 “부처께서 언젠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몸소 행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폭력이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폭력의 다른 면이 ‘체념’이다. 너와 나의 열린 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부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구하는 삶의 자세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하 시인의 기조발제와 우희종 수의과학대 교수,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방인성 광우병기독교대총장 공동집행위원장, 서강대 박광서 교수의 내부발제, 참가 대중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지하 시인은 기조발제에서 “촛불은 수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각기

노덕현 기자

“독도문제 동북아 연계 대응을”

김학린 교수 평화재단 논평



의 일관임을 호소할 수 있다”며 “일본의 근본인식을 바꾸기 위해 독도문제와 유사한 중

정부의 독도 실효적지배전략을 수정해 동북아 해양분쟁지역 전체와 연계해 대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김학린 교수는 7월 29일 평화재단 논평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강경 대응과 실효적지배 강화를 통한 대응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일 양자 대립구도에서 다자·다면구도로 전환해야만 국제사회에 일본독도영유권 주장이 과거처럼 역사

·일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와 러·일 ‘북해4도’ 문제 등을 한, 중, 러, 대만, 북한이 연계해 6자회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도는 일본에게는 하나의 섬이지만 한국에게는 식민지 해방의 역사적 상징”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 주지시키기 위해 한국의 독도만큼 일본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사안 또한 연계하자”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안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KM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iN 마이로봇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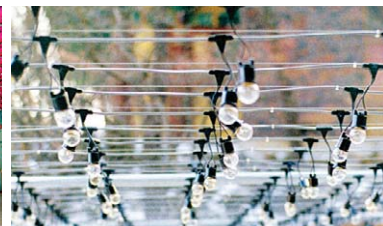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저등 승강장치_대구 정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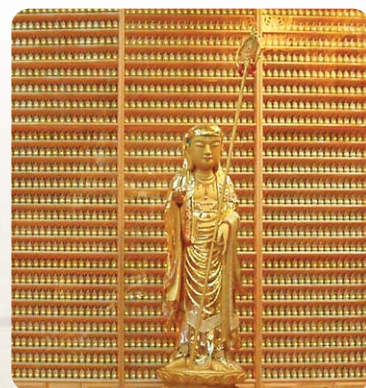
연등 저등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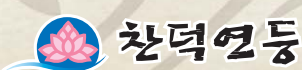
천안 동심사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깔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